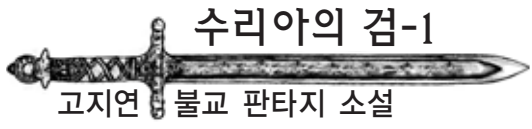


# “여기 좀 와봐. 나무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 암흑 속의 두 소년⑥

칼키는 정령에게 지금 이 방에 갇혔던 인간이 그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말을 오래 참아왔던 듯 정령이 정신없이 쏟아낸 말들 중에 칼키의 주의를 가장 끌었던 부분은 바로 그 인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곳에 갇혀 있던 인간이었는데, 정령 역시 그의 죄명이나 신분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혼잣말을 자주 하던 인간이었지” 라고 정령은 말했다.

“여기선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곳이 얼음의 감옥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야. 물론 제정신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지금’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나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간수가 지나가고 정령 역시 결국은 소멸되어 사라진 후, 계속 그 생각에만 골몰했어. 그런데 문득 내가 얼마나 여기 있었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

칼키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든 날부터 낱자를 세어 가기로 결심했으나, 방에는 딱히 기록할 만한 장소도 도구도 없었다. 그때 이 방에서 유일한 가구인 나무 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나무라면 손톱으로도 어떻게 기록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그때 이걸 발견한 거야. 정말 놀랐어. 저 빗금 수는 세어보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해 버렸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 고대문자의 내용이 무척 흥미롭지 않아.”

탁자 아래에 새겨놓은 고대 문자의 내용은 향기에 관한 것이었다. 매번 달랐던 향기와 그걸 맡았던 시기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정령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향기는 이 감옥에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변화였거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한번씩 찾아오는 변화 말이야. 그래서 빗금 수를 다시 세어 봤어. 그리고 그 기간이 제법 일정하다는 걸 발견했지.”

무니는 그제야 칼키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럼 이 바다 냄새도 그 파라지타에서?”

칼키는 “응”하고 대답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무니에게 감옥에서 나갈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건 설명이라 할 것도 없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근처까지 오면 그 뿌리로 뛰어내리자는 거야? 그런 다음엔 나무에 매달려다가 연못으로 쏘면 빠진다고?”

“그렇지. 이 기록에 의하면 거의 모든 나무가 바

로 향 앞까지 다가왔다고 되어있거든.”

“그리고 해엄쳐서 연못을 빠져나와 눈의 산을 걸어 내려간다?”

칼키는 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어제 네가 그랬잖아. 눈의 산에선 살아날 수 없다고 말야. 아니, 그럼 네 말은...?”

무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적어도 ‘죽을 수는’ 있다, 이거야?”

칼키는 무니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탁자 아래에서 기어나가 버렸다. 무니도 얼른 칼키의 뒤를 따라 나와 다시 말했다.

“죽어서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런 거나 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 다만 저 사람이 그어놓은 마지막 빗금 다음에 써놓은 말은 그래. ‘살지 못하면 죽을 수도 없다.’ 네가 그랬잖아.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나도 그래.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결국 죽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칼키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무니는 순간 바다 냄새가 보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칼키 역시 마찬가지로 울라가 밖을 쳐다봤다. 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점이 아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다 무니는 문득 방금 전 칼키의 마지막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뭐지?’ 무니는 고개를 한두 번 갸웃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질문과 대답을 듣는 일에 이치럼 지쳤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무래도 언제나 묻기도 전에 대답을 준비해놓는 난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무니는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질문도 있기 마련이다. 무니가 칼키에게 물었다.

“지금 오고 있는 저 나무가 언제쯤 이 밑으로 오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이야. 내가 여기서 바다 냄새를 맡은 지 40일이 다 되어가거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이 근처까지 오게 될 거야.”

무니의 얼굴을 쳐다보던 칼키가 다시 작은 창을 쳐다봤다.

“이렇게 어린 애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리라는 신도 미처 몰랐던 게 행운이지. 아무튼 우린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 물론 그래도 그렇다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죽지 않는다고? 공중에서 튕겨 올라오기라도 한다는 거야?”

“응. 이 감옥 전체에 두껍지는 않지만 약한 결계가 둘러져 있거든.”

그랬다. 간수는 칼키에게 일부러 쳐놓은 것은 아니지만 신의 감옥이라는 특성상 그 주위에 저절로 약한 결계가 형성되었다는 것까지 말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칼키는 오래 전 그 인간의 기록을 통해 파라지타만은 그 결계하고는 상관없이 감옥 가까이



삽화·김홍인

까지 다가오곤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차피 방법은 이제 밖에 없어. 이때를 놓치면 우리 둘이 그냥 사이좋게 한 몇 백 년 지내야할 지도 몰라.”

“그건 사양이다. 난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려간 좋아. 운이 좋아서 나무뿌리를 붙잡고, 거기서 잘 떨어져서 연못에 빠진다고 치자. 그럼 얼어 죽지 않고 산을

내려갈 방법은 생각해 봤어?”

무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되어 또 칼키에게 질문했다. 그러다 금방 스스로 답을 찾아냈다.

“아! 괴로움이 없는 연못!”

칼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파라지

타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두 소년 사이의 대화도 서서히 줄어들더니, 사흘째가 되자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포기나 좌절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워있던 무니가 벌떡 몸을 일으켜 다시 탁자 위로 기어 올라갈 때도, 칼키는 벽쪽으로 돌아앉으며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무니는 등 뒤에서 들리는 칼키의 괴로운 뒤척임 소리를 들으며 ‘괴로움이 없는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나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지, 연못 역시 물결 하나 없이 잔잔했다. 그저 투명하고, 차가워 보이기만 했다. 그러다 무니는 문득 창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도 차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아해졌다. 눈의 산, 얼음의 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인데도 말이다. ‘칼키가 말했던 결계 때문일까?’ 무니는 궁금해졌지만, 이 질문 역시 그대로 삼켜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넘겨 버렸다. 그리고 저 멀리 시선을 돌려 허공에서 정지해버린 나무를 쳐다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파라지타가 그들을 향해 아니 얼음의 성 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무니는 자기 눈이 의심스럽다는 듯 눈을 비빈 후,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그러나 나무는 아까보다 더 가까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무니의 눈 속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이! 여기 좀 와봐!”

무니는 다급하게 칼키를 불렀다. 자신을 부르는 무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칼키가 몸을 벌떡 일으켰다.

“무슨 일이야?”

“나무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칼키는 재빨리 탁자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무니 말대로 파라지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도 마치 이제까지의 기다림을 보상하겠다는 듯 얼음의 성 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중이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무니가 칼키의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칼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나무에게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저 정도면 정말 이제 곧 이 앞까지 올 거 같아.”

정말 그 거대한 나무는 이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그런 칼키의 말에 생기를 잃었던 무니의 눈빛이 반짝했다. 그러나 그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자 금방 그 눈빛이 흐려지고 말았다.

“또 이전처럼 멈추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차분하기까지 한 그 말투에, 한껏 기대로 치켜 올라갔던 무니의 어깨도 다시 쳐졌다. 무니는 불에 모조리 타 버린 고향 마을에 도착했던 그날 밤 이후로, 어떤 것도 그때의 슬픔과 고통만큼 자신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감옥에서 지낸 지난 며칠, 그의 고통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과 각각의 고통이 주는 무게 역시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감옥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질수록,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괴로움 역시 점점 더해갔기 때문이다.

##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임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

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려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로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뜬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같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